

귀인정보의 함축정보 연구: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간의 상호함축관계*

차 재 호 · 나 은 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Kelley(1967)의 입방체 귀인이론이 시사하는 3가지 귀인정보를 주는 대신 그중에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귀인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정보가 나머지 다른 정보를 함축하는지를 2개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각 실험에는 60명의 대학생들을 사용했다. 각 피험자는 12개의 행동기술문과 각각의 기술문과 짝지어진 단 하나의 귀인정보를 읽고 (1) 다른 귀인정보의 함축정도, (2) 각 귀인대상(행위자, 자극, 상황)에 대한 귀인의 정도, 그리고 (3) 3가지 귀인대상 중 가장 적합한 귀인 대상을 평정 또는 선택하였다. 대체로 두 실험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정보 함축은 일반적 정보가 특수 정보를 함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른 함축의 범칙성도 발견되었다. 이들 실험은 한 정보만으로도 다른 정보들이 함축되고 또 귀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Orvis 등(1975)의 예언을 정확히 지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정보를 함축하지 않는 高特異 情報나 低合意 情報가 귀인을 범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스키마를 가정하는 Orvis 등의 입장이나 Kelley(1967)의 입방체 이론에는 불리한 증거이다. 스키마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單一情報에서 나오는 귀인을 설명하기 위해 귀인공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귀인이 확인 정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귀인을 부정하는 정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한 귀인정보가 어떤 다른 귀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Kelley(1967)의 입방체이론(the cube theory)이라 알려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서는 관찰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귀인을 할 때 3가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들 세가지를 귀인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합의성(consensus), 특이성(distinctiveness), 및 일관성(consistency) 정보라고 하는 것이다. 합의성 정보란 특정

*본 연구는 남기덕(1986)의 연구와 함께 불완전 정보에 입각한 귀인을 다루는 연구계획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다.

한 標的行動이 특정한 한 사람에서만 관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한 사람만 그 행동을 한다 할 때 저(低)합의 정보가 되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행동을 한다 할 때 이런 정보는 고(高)합의 정보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합의차원은 “오직 그만”(低合意)과 “모든 사람이”(高合意)의 대치로 형성된 차원이라 말할 수 있다. 특이성 정보는 문제의 행동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일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여러(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일어나는지를 알리는 정보로 “그것에만”(高特異)과 “모든 것에”(低特異)의 대치로 형성되는 정보차원이다. 끝으로 일관성 정보란 문제의 행동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느 때만(또는 어느 장소에서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간단히 말하면 “언제나”(高一貫性)와 “그때만”(低一貫性)을 대치시킨 것이 일관성 정보차원이다.

Kelley의 입방체이론(Kelley, 1967)은 이 3개 정보차원을 직교시켜서 얻어지는 입방체 공간에 행동이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형태(pattern)로 분포되느냐에 따라 귀인의 방향(행위자, 자극, 또는 상황)이 정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자극에 대응하는 평면에만 행동이나 그의 결과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즉,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 행동을 하는) 형태를 나타내면 그 행동은 그 대상(object 또는 entity)에 귀인된다고 본다. 위의 예에서 분포 형태는 高特異(“그것에만”), 高合意(“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高一貫(“언제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데 Kelley(1967)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행동이 대상물(또는 자극)에 귀인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번의 행동은 이 입방체 정보공간 속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포의 형태를 알려면 이런 점들이 여럿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곧 행동을 여러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극히 제한된 회수(一回와는 구별되어야 함)의 경험을 토대로 귀인을 쉽사리 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어떻게 이런 少數 관찰로 귀인이 가능한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一回的(少數觀察이 아니고) 觀察로부터의 귀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스키마(schema)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예: Cha, 1971; Kelley, 1971, 1973)에서는 어떤 標的行動이나 그것의 결과와 狀況情報가 어떤 스키마를 중개로 해서 하나의 귀인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 어떤 스키마가 선택되고 또 喚起(evoke)되는지는 잘 해명된 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스키마를 매개로 해서 어느 한 귀인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이다. 이 입장은 Kelley(1967)의 입방체 이론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一回觀察과 구별해서 少數觀察에서 나오는 귀인도 스키마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Orvis, Cunningham, 및 Kelley (1975)가 한 바 있는데 그들은 이 경우 이 少數의 觀察이 입방체 이론에서 말

하는 3개 정보차원 중 하나나 둘만을 제공하는 상황으로 본다. 즉, 合意情報만 가지고 귀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중간에는 스키마가 개재된다고 가정한다. 3개의 정보를 다 갖추지 않은 상황을 그들은 不完全情報(incomplete information)의 상황으로 본다(Orvis, Cunningham, & Kelley, 1975). 그들은 不完全情報로도 3개의 정보가 완전히 추리되어 확실한 귀인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입장은 입방체 이론의 테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방체 이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多數觀察의 필요성을 우회하려는 시도이다. 즉, 입방체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언제나 多數觀察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少數觀察(一回보다는 많은)만 가지고도 귀인의 예언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少數觀察이란 용어를 쓰기 보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 알 수 있는 不完全情報란 용어로 문제를 다룬다. 불완전정보(3가지 정보 중 1개 또는 2개만 갖춘 상황)만 가지고도 관찰자는 입방체이론이 귀인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3개 정보로 된 결과(또는 행동)의 분포형태(pattern)를 머리속에서 떠올릴 수 있고, 이렇게 떠오른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귀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Orvis 등(1975)은 3개의 스키마를 가정하는데 이 스키마는 사실은 Kelley(1967)의 입방체이론을 검증한 McArthur(1972)의 연구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McArthur(1972)는 Kelley의 예언대로 HHH(高合意+高特異+高一貫) 정보의 경우에는 자극귀인, LLH의 경우에는 사람귀인, 그리고 LHL의 경우에는 상황귀인이 일어남을 증명했다. Orvis 등은 이 세가지 형태(pattern)들을 각각 하나의 스키마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단 이 세 형태(HHH, LLH, LHL)를 개별적인 스키마로 간주하면 부분정보(즉 불완전정보)가 주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완결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불완전 정보가 H-H 이면 첫째 자리에 H를 가진 형태는 HHH밖에 없으므로 HHH가 추리될 것이다. 세째 자리에 H를 가진 형태는 HHH와 LLH가 있으므로 이 두 형태도 추리될 것이다. 이 두가지 추리 결과를 종합하면 H-H는 HHH로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귀인의 예언이라면 자극귀인을 예언한다). 마찬가지로 H-L은 첫자리 H로 봐서 HHH를 시사하고 끝자리 L로 봐서는 LHL이 시사된다. 따라서 두 시사들을 종합하면 H-L이란 불안전 정보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HHH로 완성하거나 LHL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귀인은 자극귀인이나 상황귀인 아니면 양자 모두를 예언한다). Orvis 등의 예언은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도 취한다. H-H가 HHH 두번과 LLH 한번을 시사하는데 비운 자리(둘째자리)에 보완된 것을 보면 H두번과 L한번 이므로 빠진 정보 추리는 중정도의 高特異가 될 것을 예언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불완전 정보 HL-의 경우 첫자리 H는 오직 HHH만을 시사하는데 둘째자리 L은

LLH를 시사한다. 미완정보가 세째 자리인데 보완한 정보가 H와 H이므로 뚜렷한 高一貫이 예언된다.

이상에서 보아온 것처럼 Orvis 등(1975)의 함축정보의 예언은 McArthur(1972)의 연구에서 자극귀인, 사람귀인, 그리고 상황귀인과 연결된 것으로 밝혀진 정보형태를 근거로 한 것이다. Orvis 등이 증명한 것은 이들 정보형태(스키마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를 매개로 하면 불완전 정보만 가지고도 (1) 귀인의 방향을 예언하고, (2) 함축정보도 예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Orvis 등(1975)과 마찬가지로 불완전 정보로부터 함축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Orvis 등과는 달리 미리부터 스키마들을 가정하지 않는다. 즉, 본 연구는 어떤 불완전 정보가 어떤 다른 정보를 함축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지 않고 다만 어떤 불완전 정보가 과연 어떤 다른 정보를 함축하는지를 알아보려는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이런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스키마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정보가 다른 정보를 함축할 수 있다는 가설은 엄밀히 말해서 Kelley(1967)의 입방체 이론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가정된 자료패턴(an assumed pattern of data)”이란 말을 입방체이론과 관련하여 거듭 써왔다(Kelley, 1972; 1973, p.115). 또 입방체이론을 발표한 당시에도 결과의 예상(expectations of outcomes)만으로도 귀인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Kelley, 1967, p.213). 그러나 Kelley의 이들 초기 논문에서는 어떻게 해서 “가정된 패턴”이나 “결과의 예상”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를 한 바가 없다. 그런데 McArthur(1972)의 입방체이론의 검증연구는 한 정보는 그 정보만 제공하고 다른 정보는 함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강화했다. 왜냐하면 McArthur는 각 정보차원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즉, 완전정보 상태에서) 귀인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비록 Kelley(1967)가 완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그 이론은 논리적인 모델로서 은연중에 3개 정보차원이 서로 독립적이고 따라서 한 정보가 다른 정보를 함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은연중의 가정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McArthur(1972)의 연구설계이다. 만일 어느 한 정보차원이 다른 정보차원과 상관되면 실질적으로 3차원의 입방체는 의미를 상실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Orvis 등(1975)의 것, 즉 불완전정보를 주고 나머지 정보의 함축을 조사케 하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연구의 입장은 그들의 것과 다르다. Orvis 등(1975)의 연구는 스키마가 불완전 귀인이나 정보함축을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마의 개입을 가정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가정하는 것은 첫째, (1) 모든 정보(합의, 특이, 일관)가 없어도 귀인이 일어날 수 있으며 둘째, (2) 하나 또는 두 정보가 나머지 정보를 함

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 또는 두 정보가 입방체 이론이 규정하는 3개 정보를 모두 함축하면 스키마의 개념을 빌지 않고도 입방체 이론의 일부인 共變原理(the covariation principle)에 의해 귀인을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정 중에서 두번째 가정을 다룬다. 피험자는 3개 정보 중 단 하나의 정보만을 받고 나머지 정보를 추리한다.

방 법

피험자

第一實驗의 피험자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1학년에 재학중인 교양영어 수강생 60명이었다. 第二實驗의 피험자도 같은 교양영어의 수강생들 60명 이었는데 다른 반에 속한 학생들이었다.

질문지

第一實驗과 第二實驗에 사용된 질문지는 몇 개 문항의 제시 순서만 다를 뿐 다른 면에서는 완전히 같았다. 피험자에게 준 질문지는 12개의 행동기술문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전의 연구(南基德, 1986)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인데 행동의 종류에 따라 4가지(情動, 成就, 意見, 行爲)로 분류된다. 정동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예: “은희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했다”), 성취를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예: “정호는 그 문장을 틀리게 번역했다”), 의견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예: “영호는 그 건물을 보고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행위를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예: “창수는 국산품 애용 가두캠페인을 벌였다”)은 각각 3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모두 12개 행동기술문(4×3)이 만들어진다.

질문지는 먼저 한 행동기술문을 제시하고 그 아래 하나의 정보를 제시했다. 이 정보는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각각의 高 및 低 형이 만들어 내는 6가지 (3×2) 중의 하나였다. 이들 6개 정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합의성 정보 (高: 그 개를 보면 누구나 질겁을 한다.
低: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특이성 정보 (高: 은희는 다른 개들을 보고는 질겁을 하지 않는다.
低: 은희는 다른 개들을 보고도 모두 질겁을 한다.
- 일관성 정보 (高: 은희는 과거에도 그 개를 보면 늘 질겁을 했다.
低: 은희는 과거에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한 적이 없다.

이들 6개 정보 중 하나씩을 행동기술문과 짝지워 제시하였는데 짝짓는 방법은 4회 반복되는 6×6 Latin Square를 이용했다. 먼저 12(행동기술문)×

12(질문지 양식) 공간에서 첫 6개 행동기술문에게 차례로 앞서 본 6개의 정보(a, b, c, d, e, f로 표시함)를 짚지웠다. 즉 첫 행동기술문에는 a정보, 둘째 행동기술문에는 b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짚지웠다. 그 다음 7번부터 12번까지의 행동기술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6개 정보를 짚지웠다. 이렇게 짚지워진 12개 문항이 한 질문지 양식(양식 1)을 형성했다. 다음 질문지 양식(양식 2)은 1번부터 6번까지의 행동기술문에 f, a, b, c, d, e의 순으로 정보를 짚기게 하고 7번 이하에 대해서 같은 순서로 짚지웠다. 세번째 질문지 양식(양식 3)은 e, f, a, b, c, d의 순으로 짚지웠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반 6개 기술문과 후반 6개 기술문에 같은 순서가 반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6개의 질문지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나머지 6개의 질문지 양식(질문지 양식 7~12)에서는 처음부터의 절차가 반복되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행동기술문과 정보가 어떻게 짚지워졌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짚은 하나의 문항을 형성한다. 각 양식 속에서 문항의 순서배열을 5가지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모두 60개의 다른 질문지(12양식×5순서=60종)가 만들어졌고 각 피험자는 이들 중 하나를 받았다.

각 문항에 이어 6개의 종속변인 측정문항이 따랐는데 2개는 정보함축을 알아보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귀인을 묻는 것이었다. 정보 함축을 알아 보는 2개의 평정척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의 사실(행동기술문과 부수정보)을 알면 여러 가지 짐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각각의 짐작에 대해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예 : √ :)

(1) 경수는 다른 그림들을 보고도 반할 것이다.¹⁾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 — : — : 그렇다
 1 2 3 4 5 6 7 8 9

(2) 경수는 그전에도 늘 그 그림을 보고 반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 — : — : 그렇다
 1 2 3 4 5 6 7 8 9

위의 예에서 2개의 척도는 각각 특이성 정보와 일관성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행동기술문과 더불어 제시된 정보가 함의성정보(예: “그 그림을 보

1) Orvis 등(1975)이 사용한 척도는 보다 수량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9점 척도가 아니라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들의 척도의 예를 번역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 사실에 비추어 (경수)는 다른 그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반하겠습니까?” “하나도 ___ 거의 모두에”(특이성 정보), 2. “위 사실에 비추어 (경수)는 과거에 얼마나 자주 그 그림을 보고 반했겠습니까?” “전혀 ___ 거의 늘”(일관성 정보).

고 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였기 때문이다.

질문지 양식 1~6까지는 위 두 척도가 앞에 제시된 순으로 제시되었으나 나머지 6개 양식에서는 순서를 뒤집어 제시했다. 이 두 척도 바로 뒤에는 사람귀인, 자극귀인, 그리고 상황귀인 각각의 강도를 알아 보기 위한 평정척도 (“틀림없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마감된 9점 척도)가 따랐는데 각각은 앞에 제시된 행동을 한 이유가 “행위자의 어떤 면 때문인지”(사람귀인), “자극의 어떤 면 때문인지”(자극귀인), 그리고 “상황의 어떤 면 때문인지”(상황귀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들 3개의 척도는 6개의 순서(3!=6)로 만들어 한 질문지 양식에 그 중 한 순서를 배정하였다. 여섯 번째이고 마지막인 종속변인도 귀인에 관한 문항이었으나 평정척도가 아니라 3개의 귀인(예: (1) “경수의 어떤 면,” (2) “그 그림의 어떤 면,” (3) “그때 상황의 어떤 면”) 중에서 택일하는 문제였다. 이 문항은 언제나 질문지의 마지막에 제시되었다.

질문지는 21cm×29.7cm 크기의 14매로 된 책자로서 표지에는 지시가, 그리고 둘째 장에는 보기 문항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머지 12장에는 장마다 한 쪽 면에 하나의 문항(행동기술문 1개와 이에 대한 부수정보 1개)이 맨 위에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6개의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질문과 척도들이 차례로 인쇄되어 있었다. 정보함축을 묻는 물음은 문항에 제시된 정보의 종류를 뺀 나머지 2개의 정보를 다루었다. 第二實驗의 질문지 편성은 第一實驗의 것과는 달리 먼저 귀인강도를 알아 보기 위한 9점 평정척도 3개가 제시되고 그 뒤에 2개의 정보함축 평정척도가 뒤따랐다.

절 차

피험자들은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것은 第一實驗이나 第二實驗이나 마찬가지였다. 피험자들을 강의실로 찾아가 준비된 질문지 책자를 우선적으로 배포했다. 피험자들이 질문지 책자의 지시문을 읽고 있는 동안 실험자(第二研究者)는 이 지시문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이어 다음 장의 연습문항에 답하게 한 뒤에 나머지 12장에 있는 문항들에 답하게 했다. 第一實驗에서나 第二實驗에서나 모든 기입이 끝난 후 실험자는 60부의 질문지 책자를 회수했다.

실험설계

第一實驗과 第二實驗은 각각 피험자(60)×문항(12) 설계로 문항은 반복측정 변인이다. 문항변인 속에 6개의 정보(高合意, 低合意, 高特異, 低特異, 高一貫, 低一貫)가 안겨(nested)있었다. 이들 6개 정보와는 별도로 4개의 動

詞範疇(정동, 성취, 의견, 행위)가 12개 문항에 안겨 있는 설계였다.

결 과

정보함축 평정치

앞서 말한대로 第一實驗과 第二實驗은 전자에서는 정보함축 평정 다음에 귀인강도 평정이 있었던 데 반해서 후자에서는 이들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와 같은 두가지 순서를 사용한 것은 귀인과 정보함축 중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나는지에 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두 실험에서 얻은 정보함축 평정치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 <표 1>과 <표 2>에 나와 있다.

<표 1> 귀인평정에 앞서 얻은 정보함축평정치 평균(第一實驗)

정보조건		정보 함축 평정치 평균		
합의 특이 일관		합 의 성 ^a	특 이 성 ^b	일 관 성 ^a
H	-		4.12(+.88***) ^c	6.14(+1.14***)
L	-		5.17(-.17) $t=3.49***$	5.50(+.50*) $t=1.23*$
-	H	5.30(+.30)		5.34(+.34)
-	L	4.40(-.60**) $t=5.05***$		7.01(+2.01***) $t=6.05***$
-	-	H	4.87(-.13) $t=.37$	5.06(-.06)
-	-	L	4.95(-.05) $t=.37$	4.13(+.87***) $t=3.40***$

H=High, L=Low.

- a. 높은 수치일수록 高合意 또는 高一貫을 나타냄.
- b. 높은 수치일수록 低特異를 나타냄.
- c. 괄호 안 수치는 척도치 5를 基點으로 한 편차치 $d=(x-5)$ 이며 (x 는 척도치), 이 편차치와 0 간의 차의 의의도 검증결과는 괄호 안의 asterisk로 표시되어 있음. 단, 특이성 함축의 경우 편차치 d 는 $(5-x)$ 로 산출했음.
- d. 두 정보조건 H와 L의 차의 의의도 검증 결과임.

* $p<.05$. ** $p<.01$. *** $p<.001$. 兩方檢證.

<표 2> 귀인평정 뒤에 얻은 정보함축평정치 평균(第二實驗)

정보조건		정보 함축 평정치 평균		
합의 특이 일관		합 의 성	특 이 성	일 관 성
H	-		4.05(+.95***)	5.49(+.49*)
L	-		4.63(+.37) $t=2.25*$	5.18(+.18) $t=1.03$
-	H	4.92(-.08)		5.46(+.46*)
-	L	4.24(-.76***) $t=3.04**$		5.95(+.95***) $t=1.89$
-	-	H	4.71(-.29)	4.33(+.67***)
-	-	L	4.38(-.62***) $t=1.54$	4.22(+.78***) $t=.42$

* $p<.05$. ** $p<.01$. *** $p<.001$. 兩方檢證.

이 점수들은 모두 9점 척도에서 얻은 것으로 점수의 범위는 1점(“그렇지 않다”)에서 9점(“그렇다”)까지 있는데 9점의 평점은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高合意), “다른 자극에도 그럴 것이다”(低特異), 또는 “그전에도 늘 그랬을 것이다”(高一貫)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로 高一般性(high generality)의 함축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평정척도 앞에 준, 평정대상이 되는 문장이 모두 高一般性的의 방향(예: “경수는 그전에도 늘 그 그림을 보고 반했을 것이다”)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9점이 뚜렷한 함축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1점의 평점도 또한 정보함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一般性(즉, 高合意, 低特異, 또는 高一貫)의 정보를 否定하는 것이므로 低合意, 高特異, 또는 低一貫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점이란 평점은 어느 쪽의 함축도 잘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표의 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같은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高合意情報는 高一貫과 高特異情報를 함축한다. (2) 低一貫情報는 高特異情報를 함축한다. 그리고 (3) 低特異情報는 低合意와 高一貫情報를 함축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合意情報와 特異情報는 일반성(generality)이 높을 때(즉, 高合意 또는 低特異 때) 다른 정보들을 함축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함축하는 정보는 合意含蓄과 特異含蓄에 관한 한 반대의 방향으로(즉, 低一般性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一貫情報는 일반성이 낮을 때(低一貫情報 때) 다른 정보를 함축하는데 함축하는 정보 또한 低一般性 정보(예: 高特異, 때로는 低合意情報)가 되기 쉽다.

두 실험간의 함축정보 결과에서의 차이는 귀인평정을 하기 전(第一實驗)에는 低合意가 高一貫은 함축했으나 귀인평정이 있는 뒤(第二實驗)에는 그런 함축이 사라졌다는 것과 귀인평정을 하고 난 뒤(第二實驗)에는 하기 전(第一實驗)에 비해 高一貫과 高特異情報間에 상호함축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귀인평정 후에는 高一貫과 高特異間의 관계가 더 밀접해짐을 시사한다. 또 低合意와 高一貫間의 함축관계가 귀인 후에 없어지는 것은 후자의 경우 自我關與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사람은 低合意情報로 사람귀인을 하게 되는데(第二實驗에서처럼 귀인평정을 요구받을 때) 그 때 그 사람과 自我關與가 되면 될 수록 그의 행동의 일관성을 추리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과 <표 2>와의 사이에는 다른 差異도 보인다. 그것은 적어도 일관성 함축평정치가 귀인 후(第二實驗)의 경우 덜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표 3>은 第一實驗과 第二實驗에서 얻은 함축평정치의 차이치 $d(=X_1 - X_2)$ 를 나타낸다. 차이치(d)의 부호는 만일 第二實驗의 평정치가 第一實驗의 그것보다 5.0에 더 가까우면 “+”로, 더 멀면 “-”로 표시했다. <표 3>에서 보면 귀인 후에는 일관성 함축이 더 애매해짐(5.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합의

성함측은 귀인 후에 보다 低合意 쪽으로 확실해졌다(표 3 참조). 특이성함측의 경우는 귀인 후의 평정치가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곧 귀인 후에 高特異 쪽으로 함측이 변해감을 뜻한다. <표 1>과 <표 2>의 수치간의 비

<표 3> 두 실험에서 얻은 정보함측평정치들간의 차이(第二實驗의 것이 5.0에 더 가까우면 +부호로 표시했음)

정 보 조 건			정 보 함 측 평 정 치 평 균 의 차		
합 의 특 이 일 관			합 의 성	특 이 성	일 관 성
H	-	-		-.07	+.65
L	-	-		-.54	+.32
-	H	-	+.38		-.12
-	L	-	-.16		+1.06
-	-	H	-.16	-.73	
-	-	L	-.57	+.09	

교는 대체로 <표 2>의 수치(함측평정)가 <표 1>의 것보다 작아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10개의 함측평정치 평정 중 귀인 후(第二實驗)의 평정치가 귀인 전(第一實驗)보다 큰 경우는 근소한 차이를 낸 2개 뿐(高特異로부터의 일관성 함측; 低一貫으로부터의 특이성 함측) 나머지는 모두 귀인 후의 평정치가 귀인 전의 평정치보다 작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피험자들이 귀인을 하고 난 뒤에는 一般性 反應("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다른 자극에도," "그전에도 늘")을 기피하는 데서 나온 것인듯 하다. 이는 마치 생각할 시간을 더 가졌기 때문에 무턱대고 일반화 하는 경향을 삼가는 것처럼 보인다.

두 표간의 다른 차이는 각 정보의 高低(H와 L)간의 함측도의 차이의 유의도에 나타난다. 합의성 정보로부터의 함측은 第一實驗의 경우 특이성과 일관성에 모두 유의했으나(각각 $t=3.49, p<.001$ 와 $t=2.13, p<.05$ 兩方檢證) 第二實驗의 경우는 오직 특이성 함측만이 낮은 의의도($t=2.25, p<.05$)를 보였을 뿐이다. 이상에서 본 것을 요약하면 귀인을 하고 나면 귀인을 하기 전에 비해 低合意와 高特異 쪽으로 함측이 변하고(즉, 사람귀인과 자극귀인을 낳기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일관성 함측은 오히려 더 애매해지고, 함측에서 일반화 하는 경향이 줄어들며(즉, 더 조심스러워지며), 끝으로 합의성 정보가 특이성과 일관성에 대해 갖는 함측이 약화 하거나 없어진다. 특이성 함측이 약화되는 것은 합의정보의 高低에 관계없이 귀인을 하고 난 뒤에는 高特異 함측이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귀인평정치

귀인평정은 행위자, 자극, 그리고 상황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관찰된 행동의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9점 척도에 평정하는 것이었다. 이 척도는 單極(unipolar) 척도로 9점("틀림없이 그렇다")은 확실한 귀인을 나타내고 1점("그렇지 않다")은 귀인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들 3개 척도의 평정도 第二實驗에서는 정보함축 측정 전에, 그리고 第一實驗에서는 정보함축 측정 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第二實驗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면 두 실험에서의 귀인평정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함축평정에 앞서 얻은 귀인평정치 평균(第二實驗)

정보조건	귀인 강도 평균치 및 t값						정보조건별 DMR검증 ($\alpha = .001$) ^b
	행위자 귀인 (P) ^a	t	자 극 귀인 (S) ^a	t	상 황 귀인 (C) ^a	t	
H - -	4.83	$t=7.94^{***}$	7.36	$t=6.70^{***}$	5.25	$t=1.60$	S > C = P
L - -	7.27		5.37		5.96		P > C = S
- H -	5.41	$t=5.79^{***}$	7.42	$t=9.17^{***}$	5.64	$t=3.04^{**}$	S > C = P
- L -	7.32		5.02		4.78		P > S = C
- - H	6.38	$t=4.06^{***}$	6.88	$t=4.74^{***}$	4.57	$t=10.22^{***}$	S = P > C
- - L	5.28		5.61		7.30		C > S = P

H=High, L=Low.

a. 높은 수치일수록 행위자, 자극, 또는 상황에의 귀인이 높은 것을 의미함.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

** $p < .01$. *** $p < .001$.

<표 5> 함축평정 뒤에 얻은 귀인평정치 평균(第一實驗)

정보조건	귀인 강도 평균치 및 t값						정보조건별 DMR검증 ($\alpha = .001$) ^b
	행위자 귀인 (P) ^a	t	자 극 귀인 (S) ^a	t	상 황 귀인 (C) ^a	t	
H - -	4.99	$t=5.31^{***}$	7.55	$t=7.43^{***}$	5.39	$t=1.19$	S > C = P
L - -	6.82		5.67		5.72		P > C = S
- H -	5.57	$t=4.73^{***}$	6.85	$t=3.47^{***}$	5.68	$t=3.71^{***}$	S > C = P
- L -	7.11		5.91		4.76		P > S > C
- - H	6.71	$t=4.75^{***}$	7.14	$t=4.69^{***}$	4.52	$t=8.95^{***}$	S = P > C
- - L	5.23		5.73		7.08		C > S = P

H=High, L=Low.

a. 높은 수치일수록 행위자, 자극, 또는 상황에의 귀인이 높은 것을 의미함.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

*** $p < .001$. 兩方檢證.

〈표 4〉와 〈표 5〉에 나온 결과는 거의 서로 일치한다. 이것은 한 정보만을 가지고 하는 귀인이 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귀인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低合意情報은 행위자 귀인을 낳으나 高合意는 자극귀인을 낳는다. (2) 低特異情報은 행위자 귀인을 낳으나, 高特異情報은 자극귀인을 낳고 또 상황귀인도 어느 정도 낳는다. (3) 高一貫情報은 약간의 행위자 귀인과 자극귀인을 낳고 低一貫情報은 상황귀인을 낳는다. 이들 결과 중 低合意情報가 행위자 귀인을 낳는 것, 高特異情報가 자극귀인을 낳는 것, 그리고 低一貫情報가 상황귀인을 낳는 것은 모두 Kelley(1967)의 이론에서 예언되는 바 대로이다(Cha & Nam, 1985). Kelley의 입방체 이론에서 예언하지 못했던 것은 (1) 高合意情報가 자극귀인을 낳는 것, (2) 低特異情報가 행위자 귀인을 낳는 것, (3) 高特異情報가 상황귀인을 낳는 것, 그리고 (4) 高一貫情報가 자극귀인과 행위자귀인을 낳는 것이다. 이들은 Kelley의 입방체 이론 속의 the presence - absence test로서는 전혀 예견되지 않은 결과들이다(Cha & Nam, 1985). 위의 사실은 〈표 4〉와 〈표 5〉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第二實驗과 第一實驗間에 차이가 있다면 전자에서는 低特異情報가 행위자 귀인만을 낳았으나 후자에서는 행위자 귀인과 자극귀인도 내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차이는 第二實驗(합축 측정이 있기 전에 귀인측정이 있었던 조건)에서는 평정평균이 7.0을 上廻하던 低合意情報에서의 행위자 귀인(7.24)이 第一實驗에서는 약화되어 7.0에 미달했다(6.83). 또 高特異情報에서는 평균이 7.42이던 자극귀인이 第一實驗에서는 6.85로 약화되어 나타났다(표 4와 5 참조). 마지막으로 第二實驗에서는 7.30이나 되던 低一貫情報에서의 상황귀인이 第一實驗에서는 7.08로 약화되어 나타났다. 이들 셋은 모두 Kelley의 입방체이론이 분명히 예언한 귀인들인데 합축검사를 거치고 나온 후에는 모두 귀인이 약화되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합축평정을 거치고 나면 주어진 정보 이외에 피험자들이 합축에서 얻은 정보를 귀인에 이용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이유 선택으로 본 귀인경향

주어진 행위자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피험자는 3개의 이유(행위자, 자극, 그리고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이 문항에서 나온 자료는 각 가상적 이유가 받은 선택의 빈도이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문항은 질문지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행동기술문 12개 중 문항 1~6까지(정동/성취 동사의 문장들)의 결과와 문항 7~12까지(의견/행위 동사의 문장들)의 결과를 따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한 피험자가 문항 1에서 12까지 반복 반응을 했고, 문항 1과 문항 7, 문항 2와 문항 8,

… 등이 각각 같은 부수정보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第一實驗과 第二實驗이 있으므로 실제로 이 종속변인에 관한 자료는 4개(2개 실험×전반·후반 문항)가 된다.

이들 4개의 자료셀 각각에서 각 귀인요소(행위자, 자극, 상황) 각각에서 예컨대 高 및 低合意間의 빈도의 차이를 F 검증을 했다. 이 절차를 자극귀인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귀인에 대해서도 반복했다. 얻은 결과는 두 실험에서 얻은 前半部(정동/성취 동사 문장)들 간에, 그리고 後半部(의견/행위 동사 문장)들간에 극히 유사했다. 따라서 두 실험의 결과를 併合한 것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왼편 쪽은 前半部(문항 1~6)의 결과이며 오른편 쪽의 것은 後半部(문항 7~12)의 결과이다.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前半部와 後半

<표 6> 정보조건별로 본 행위자, 자극 및 상황귀인의 선택의 빈도

정보조건	문항 1~6(정동/성취)				문항 7~12(의견/행위)					
	행위자	자	극	상	행위자	자	극	상	황	계
H - -	19***	90***	11***	120	11***	85***	24	120		
L - -	69	15	36	120	69	28	23	120		
- H -	22***	65***	33***	120	31***	73***	16	120		
- L -	102	14	4	120	73	35	12	120		
- - H	68***	43*	9***	120	38***	72***	10***	120		
- - L	22	26	72	120	15	40	65	120		
평균 빈도	50.3	42.2	27.5	120	39.5	55.5	25.0	120		

* $p < .05$. *** $p < .001$. 각종 정보내의 H와 L간 차이의 의의도 검증임.

兩方檢證.

部の 자료가 같은 피험자군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과 또한 모든 정보조건의 결과도 같은 피험자군을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들 빈도는 상관된 빈도들이다. 각 정보변인의 수준(高低)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설계에서의 ANOVA 분석(피험자×정보수준)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준간 차의 F 値의 의의도가 <표 6>에 asterisk로 표시되어 있다. 3개의 비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변인들이 유의한 귀인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에 나타난 高低水準間의 차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高合意情報은 압도적으로 자극귀인을 내며 低合意情報은 행위자 귀인을 내는 경향이 있다. (2) 高特異情報은 주로 자극귀인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低特異情報은 압도적으로(특히 前半部 문항에서) 행위자 귀인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高一貫情報은 행위자 귀인(특히 前半部에서)과 자극귀인(특히 後半部에서)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低一貫情報은 상황귀인을 내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든 정보와 귀인경향간의 관계 중 Kelley(1967)의 the presence-absence test에 의해 예언되지 않는 관계들이 들어 있다. 먼저 위의 기준에서 예언되는 관계들을 들어 보면 (1) 低合意情報과 행위자 귀인, (2) 高特異情報과 자극귀인, 그리고, (3) 低一貫情報과 상황귀인이 있다. Kelley가 예언하지 않았던 관계는 (1) 高合意情報에 따른 자극귀인, (2) 低特異情報에 따른 행위자 귀인, 그리고 (3) 高一貫情報에 따른 행위자귀인과 자극귀인이다. 이들 귀인은 Kelley의 입방체이론이 예언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Orvis 등의 스키마이론은 예언하는 결과들이다.

스키마이론과는 별도로 앞서 본 함축정보에 관한 결과를 이용하면 이들 새로운 정보-귀인관계는 Kelley의 the presence-absence test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첫째, 高合意情報가 자극귀인을 내는 것은 高合意情報가 高特異情報(Kelley는 이 정보가 자극귀인을 낳는 것으로 말한다)를 함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HH-의 정보패턴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아 온 것처럼 高合意情報는 高特異情報만이 아니라 高一貫情報도 함축한다. Kelley(1967)는 高合意, 高特異, 그리고 高一貫(HHH)은 함께 자극귀인을 낳는다고 예언한 바 있고 실제 그렇다는 것이 McArthur(1972)에 의해 증명되었다. 또 低特異情報가 행위자귀인을 낳는 것은 低特異情報가 低合意情報(이것은 Kelley의 입방체이론에 의하면 행위자귀인을 유발한다)와 高一貫情報(LLH)를 함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高一貫情報가 행위자귀인이나 자극귀인을 낳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좀 더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高一貫情報는 때론 高特異情報를 함축하므로(표 2 참조) 이 함축이 자극귀인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高一貫情報가 低合意情報를 함축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低合意가 高一貫情報를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귀인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는 두 개의 또다른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Orvis 등(1975)이 시도한 것처럼 어떤 정보셋이 하나의 스키마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3개의 정보가 한 조를 이루면 그 중 하나만 유발되어도 나머지 2개의 정보가 함축관계로 유발된다는 생각이다. 두번째는 귀인의 공간을 설정해서 공간내 어느 한 쪽에의 귀인이 일어날 수 있는 정보와 반대되는 정보가 있으면 공간내의 다른 쪽으로 귀인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스키마도 가정하지 않는다는 잇점이 있다. 이런 다른 설명은 논의에서 다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 상론은 하지 않겠다.

〈표 6〉에서 또 한가지 드러나는 부수적인 사실은 행위자 귀인과 자극귀인이 상황귀인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정동과 성취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한 前半部의 행동기술문에 대해서는 행위자귀인이 자극귀인보다 자주 나

타났으나 의견과 행위의 동사를 다룬 後半部에서는 자극귀인이 행위자귀인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본 실험설계로는 이런 경향이 어느 동사범주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연구(McArthur, 1972; Cha & Nam, 1985)에 비추어 전자는 성취 동사에, 그리고 후자는 의견 동사에 의해 결과가 좌우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한 정보만 받고도 다른 정보를 쉽게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한 정보만 가지고도(Kelley의 立方體理論이 가정하는 것처럼 3가지 이상의 다른 정보를 갖지 않고도) 귀인이 쉽게 일어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조건과 종속변인은 Orvis 등(1975)이 이미 손을 댄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Orvis 등의 연구를 알지 못한 채 설계되었다. 따라서 Orvis 등의 연구와 본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보는 각도에 차이가 있다. Orvis 등(1975)은 3개의 정보차원상의 수준들이 하나의 스키마(schema)를 형성하고 있으므로(예: 자극귀인과 결부된 高合意, 高特異, 및 高一貫情報 조합), 이들 정보들 중 하나 또는 둘이 제시될 때 Gestalt심리학에서 말하는 完結(closure)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정보가 함축되고 이렇게 해서 유발된 스키마가 그에 합당한 귀인도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스키마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이전 연구(즉, McArthur(1972)의 것)에서 얻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데 불과하다. 본 연구는 스키마를 가정하지 않고, 각 단일 또는 복합정보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다른 정보를 함축한다고 가정했고 이 가정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나 Orvis 등(1975)의 연구는 단일정보가 다른 정보를 함축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본 연구의 결과 각 귀인정보가 다른 정보를 함축하는데 어떤 법칙이 있음이 드러났다. 하나는 (1) 함축은 일반성(generality)이 있는 정보(예: 高合意, 低特異, 高一貫情報-이들은 모두 “누구나,” “모든,” “언제나” 등의 표현이 들어가는 정보이다)에서 그런 일반성이 없는 정보로 향해 일어나고 그 반대방향으로의 함축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보면 高合意情報(일반적)은 高特異情報(특수적)를 함축했고, 低特異情報(일반적)은 低合意(특수적)를 함축했다. 또 高一貫情報(일반적)은 高特異情報(특수적)를 함축했다(실험 2에서만). 둘째로 (2) 일반성이 있는 정보는 다른 일반성이 있는 정보를 함축할 수 있다. 그래서 低特異情報(高一般性情報임)은 高一般性인 高一貫情報를 함축한다. 끝으로 (3) 일반성이 없는 정보는 다른 일반성이 없는 정보를 함축한다. 예컨대 低一貫情報(특수적)가 高特異情報(특수적)를 함축하는 것 같은 경

우이다. 이들 法則이 보이듯이 함축은 일반에서 특수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일반법칙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低合意情報에서 高一貫 정보로 이어지는 함축(실험 1)인데 이 경우 함축의 강도는 다른 것들에 비해 아주 약했고 따라서 우연적인 결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함축의 비대칭성 내지 비호환성(nonreciprocity)을 말할 수 있다. 두드러진 예로 高合意情報와 高特異情報간의 함축관계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후자를 함축하나 후자는 전자를 함축하지 않았다. 함축관계가 모두 이런 비대칭성을 보인 것은 주목할만 하다.

함축자료에는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결과가 있다. 그것은 즉, 어떤 정보는 함축으로 나오기는 해도 그 자체는 다른 정보를 함축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런 정보를 終着的 情報(terminal information)라고 부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終着情報는 高特異情報였다. 이 정보는 低一貫情報와 高合意情報가(第二實驗에서는 高一貫情報까지도) 함축하는데 그 자체는 다른 어떤 정보도 함축하지 않았다. 다른 終着情報로는 低合意情報(低特異情報가 함축한다)와 高一貫情報(高合意情報와 低特異情報가 각각 함축한다)가 있었다. 여기서 든 3개의 終着情報 중 高特異情報와 低合意情報는 각각 Kelley의 the presence-absence test의 기준에 의거하여 자극귀인과 행위자귀인을 낳게 하는 정보들이다. 다만 세째 終着情報인 高一貫情報는 위의 기준으로 상황귀인을 방해하는 정보이다. 즉, 종착정보는 Kelley의 입방체이론에서 상황귀인을 방해하는 것(그래서 다른 두 귀인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각각 자극귀인과 행위자귀인을 낳게 하는 두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終着情報와는 달리 다른 정보들을 함축하고 그 자체는 다른 어느 정보에 의해서도 함축해 줌을 받지 않는, 말하자면 始源情報(original information)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정보로는 (1) 高合意情報와 (2) 低特異情報가 있다. 전자는 高特異情報와 高一貫情報를 함축하는데 始源 자체까지 합치면 高合意+高特異+高一貫(HHH)²⁾의 형태를 구성한다(下線은 始源情報를 표시한다). 그런데 이 형태는 바로 입방체 이론이 자극귀인을 예언하는 그런 정보셋이다. 후자(低特異)는 低合意情報와 高一貫情報를 함축하는데 始源까지 합치면 低合意+低特異+高一貫(LLH)의 형태를 이루고 이는 입방체이론이 행위자귀인을 예언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始源情報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주어지면 입방체이론이 요구하는 3가지 정보가 구비되어 귀인(자극귀인 또는 행위자귀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단 한개의 정보만을

2) H는 high, L은 low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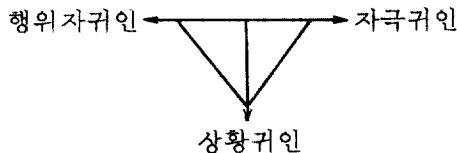
함축하는 始源情報도 보였는데 그것은 (3) 低一貫情報이다. 이 정보는 高特異情報을 함축하는데 이 두 정보(高特異+低一貫)는 상황귀인 형태인 低合意+高特異+低一貫(LHL)과 유사하다. 귀인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함축과제를 받은 第二實驗에서는 高一貫이 高特異를 함축하는 것으로(그리고 低一貫이 동시에 高特異를 함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형태는 자극귀인을 내는 高合意+高特異+高一貫(HHH)의 형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始源情報가 어떤 정보인지를 알면 대략 어떤 귀인이 나올 것인지를 예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예언은 입방체이론(Kelley, 1967)을 원용하지만 스키마(Orvis 등, 1975)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예언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한 정보가 다른 정보들을 함축한다는 사실은 Kelley의 입방체이론에 불리한 증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보입방체를 함축입방체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입방체가 함축의 입방체라면 반드시 3개 정보가 제시될 필요는 없고 한 정보만 주어져도 필요한 3개 정보 내지 함축이 갖추어져서 쉽게 귀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보를 함축하지 않는 정보(즉, 終着情報)들이 귀인을 낸다는 사실은 Kelley(1967)의 입방체 귀인이론과 스키마를 가정하는 Orvis 등(1975)의 입장에 불리하다. 그런 정보로는 高特異情報, 低合意情報, 低一貫情報, 그리고 高一貫情報가 있는데, 高特異情報는 자극귀인을 낳고(표 4와 표 5 참조), 低合意情報는 행위자귀인을, 低一貫情報는 상황귀인을, 그리고 高一貫情報는 자극귀인(그리고 다분히 행위자 귀인도)을 낳는다. 이런 결과는 대체로 Kelley의 the presence-absence test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나 함축이 없이 주어진 단일정보만으로 귀인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러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입방체이론에는 불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또 한가지 사실은 귀인은 긍정적인 정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정보가 자극귀인에게 不利한 것이면(부정적 정보) 그것은 행위자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런 가설을 펴려면 한정된 귀인공간(an attribution space)을 가정해야 한다. 우리는 귀인공간이 아래와 같은 삼각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상황귀인에 불리한 정보(高一貫情報)가 있으면 상황귀인의 가

능성은 줄어들고 그것은 귀인의 공간이 위 삼각형의 상부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삼각형의 상부에서는 오직 자극귀인과 행위자귀인의 두 가능성이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가령 자극귀인에 불리한 것이면(예: 低特異情報) 자극귀인의 공간은 제약되고 귀인은 행위자귀인 쪽으로 기울다는 것이다. 물론 행위자귀인은 그것을 지지하는 정보(예: 低合意情報)로도 촉진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긍정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쟁 귀인방향인 자극귀인에 불리한 정보(예: 低特異情報)에 의해서도 가령 행위자귀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위자귀인에 긍정적인 정보(低合意情報)가 함께 주어진다면 행위자귀인은 한층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왜, 가령, 高合意(일반성 정보)가 高特異(특수성 정보)를 함축하느냐는 물음이다. 이 함축관계의 起源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것은 확실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함축관계가 생기는지는 명확치 않다. 물론 그 함축관계가 Orvis 등(1975)이 가정하는 것처럼 스키마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입장은 또 어떻게 스키마가 생겨났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함축결과는 Orvis 등(1975)이 얻은 결과와 극히 유사했다. Orvis 등은 각 귀인을 전형적으로 내는 정보조합(형태)을 과거 연구에 기초하여 분리해 내고 주어진 정보가 각각의 정보조합 중 어느 것과 부분적으로나마 일치하는지를 알아 어느 한 조합하고만 부합하면 그 조합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이 함축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만일 주어진 정보가 몇개의 다른 조합과 부합할 때 그리고 그 다른 조합들이 포함한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이 상치되는 것일 때는 그 정보에 대한 함축을 갖지 않는다고 예언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예언들과 얻은 결과를 비교한 결과 Orvis 등(1975)은 상당히 예언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본 연구(第一實驗)의 결과를 Orvis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Orvis 등의 결과보다도 그들의 예언과 더 잘 일치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Orvis 등의 스키마 가설도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키마 가설의 검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개의 정보로 귀인이 가능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구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귀인과정인 Kelley(1967)가 생각한 것처럼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노력 절약적인 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나온 질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앞으로는 스키마의 가정을 하지 않고도 제한된 정보로부터 정보함축이나 귀인을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스키마를 전제로 하는 이론과 그렇지 않은 이론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비교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남기덕 (1986). 인과귀인에서의 정보의 위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a, J. H. (1971). Clarity of the focal stimulus cue and the mediation of two opposing social perceptual phenomen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Cha, J. H., & Nam, K. D. (1985).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5, 192-238.
- Kelley, H. H. (1971). *Attribution in social interaction*.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72).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73).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8, 107-128.
- McArthur, L. A. (1972). The how and what of why: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2), 171-193.
- Orvis, B. R., Cunningham, J. D., & Kelley, H. H. (1975). A closer examination of causal inference: The roles of consensus, distinctivenes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4), 605-616.

**Implications and Attributions from Single Attribution
Information: Implicational Relationships among Consensus,
Distinctivenes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Cha, Jae-Ho and Na, Eun-Y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wo related experiments, each based on 60 college students, tested the idea that people can draw informational implications from a single piece of information (consensus information, distinctiveness information, or consistency information) and also make attributions regarding each behavior description they read. As expected, subjects experienced no difficulty drawing implications out of the information given and making attributions of the behavior. The information implications produced supported the predictions made by Orvis et al. (1975) in almost every detail. The fact that terminal information (the information which is implied by but does not imply other kinds of information) did produce attributions is inimical to Orvis et al.'s (1975) position which posits schemata and also to Kelley's (1967) cube theory of attribution. Attempts were made to find laws governing the observed information-implication relations and ways to make predictions without invoking the concept of schema. The notion of an attribution space was introduced, and it was argued that an attribution can be driven not only by confirming information but also by disconfirming information favoring a competing attribution.